

사회

감사 못매 예고 광주교육청 초긴장

학폭 미기재 감사원 감사이여 국감서 공립특채 비리 등 촉각 곤두

광주시교육청이 잇따라 실시될 감사원 감사(8일~12일)와 국정감사(16일)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침을 거스르고 있는 시교육청의 학폭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예고된다. '교원 특채비리'와 '실력 광주' 위상 추락 등 각종 논란이 국감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이 8일부터 12일까지 시교육청과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 학교 안전시설 관리 상태와 안전시설 관련 하자 발생 여부를 감사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학교폭력 부문이 추가돼 주목된다. 시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적도록 한 교과부 훈령을 사실상 어기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학폭기재를 보류해놓은 상태다.

시교육청은 올해도 혹독한 국정감사를 받아야할 처지다. 지난해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의 학생 성폭행 사건이 불거져 못매를 맞았고, 올해도 교사채용 비리, 교원 인사, 교육 행정, 학교 폭력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립교사 공립특채 비리에는 빼아

픈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인사 담당자 등은 사립교원을 공립교원으로 특채하는 과정에서 예초 2순위였던 전교조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 검찰에 고발돼 법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라가라" 교육행정으로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킨 점도 국감에서 파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보통교의 최근 자율형 사립교 반납 사태도 예외는 아니다. 시교육청은 "총(總)정원 과원은 특채를 허용할 수 있으나, 과목별 과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사태 해결과정에서 교사 9명을 공립으로 특채키로 확정했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 학력저하 문제는 국감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고득점 '실력 광주'로 불렸던 광주지역 고3 수능실력이 장휘국 교육감 출범 이후 성적 상위 30개 시군구에 포함된 숫자가 줄어든 것은 물론 순위도 푹 떨어진 점은 시교육청의 해명에도 지역교육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현안이 너무 많아 국감 현상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지 알 수 없다"며 "차질없는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엽기사건 2題 /

음란사이트서 공범 모집 옛애인 성폭행 징역 10년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최근 음란사이트에서 모집한 공범과 함께 전 여자친구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27)씨와 조모(28)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6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수년간 사귀던 여자친구의 변심에 화가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폭행 가담자를 공모,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조씨와 함께 지난 6월13일 밤 11시30분경 강도도 위장한 뒤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강제로 술을 먹고 본드까지 흡입시킨 뒤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구용 칼날 씹어 자해 "음식서 나왔다" 돈 뜯어

문구용 칼날을 입안에 넣고 씹어 고의적으로 상처를 낸 후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식당업주에게 돈을 뜯어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7일 "음식에서 문구용 칼날이 나왔다"며 음식점 업주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고모(29)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청소년 강간 등 전과 14번인 고씨는 지난 8월31일 광주시 북구의 한 식당에서 치료비를 요구하며 주지 않으면 식탁에 고발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다. 고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해당 음식점 납품업체로부터 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662) 김종두



저수지 잠긴 차 트렁크에 변사체

장성서 물뺀기 작업중 40대 여성 타살 의혹

장성의 한 저수지 바닥에서 인양된 차량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께 장성군 삼계면 한 저수지에 스포티지 차량 1대가 뒤집혀 빠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차량 트렁크에서는 A(여·41)씨

로 추정되는 반백발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신분증과 소지품이 차량에 놓여 있었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된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 결과 발견된 스포티지 차량은 A씨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차량은 평소 신고가 접수된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량 곳

곳이 늪이 습 상태였다. 경찰은 신분증과 시신과의 동일인 여부를 조사중이며, 정확한 사인과 신원을 밝히기 위해 8일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시 차량이 발견된 저수지는 독 높이기 공사로 인한 물뺀기 작업이 진행중이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어린이들에 무한한 사랑을

광주기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문순정) 소속 보육교직원 1600여명은 지난 6일 전남대 체육관에서 어울림 행사를 개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항주홍 의원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종필)은 최근 지역 인사들에게 특산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항주홍(장흥·영암·강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항 의원은 강진군수 재임 시절인 지난해 9~11월 전직 지방의원, 지역 신문기자, 유권자 등 7명에게 모두 22만원 상당의 토하차, 찻살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원이달인 지역 교육을 정상화했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허위사실 유포)한 데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화염사 각항전 하마터면 불탈 뻔

경찰, 방화 용의자 차량 추적

방범처리돼 피해 없어

국보인 구례 화염사 각항전 방화사건 사건과 관련 경찰이 방화 용의자가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쫓고 있다. 7일 구례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일 새벽 2시30분을 전후해 화염사 경내에 승용차 한 대가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매표소 CCTV에 찍혔다. 경찰은 이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화면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주변이 어둡고 화질이 좋지 않아 어두운 색상의 승용차라는 점 외에 차종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화염사 경내에 설치된 다른 CCTV도 분석했지만 발생 당시 각항전에서 찍힌 장면 이외에는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염사 주변으로 범위를 넓혀 사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탐문하고 있다. 경찰은 또 각항전 문쪽의 문풍지 등에 지문이 묻어 있는지, 범인이 불을 붙이려고 어떤 물질을 썼는지 등

을 분석해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5일 새벽 2시 30분께 구례 화염사에 있는 각항전 뒤쪽 문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신문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 당시 예불을 올리려던 스님이 시너 냄새를 맡고 현장을 조기 발견한데다 방범처리라 왜 문 절반이 그들렸을 뿐 큰 피해는 없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화염사 각항전=정면 7칸, 측면 5칸의 다포계(多包系) 중층 팔작지붕으로 지어진 2층 건축물이다. 조선 숙종 때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물이 웅장하고 건축기법도 뛰어나 1962년 국보 제67호로 지정됐다.

“전남대 생명과학기술부 개편 위법하지만 유효”

광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전남대 생명과학기술부 조직개편과 관련,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면서도 개편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전남대 교수 2명이 대학측을 상대로 낸 학칙 개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회의

의의를 거치지 않고 학칙을 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남대가 이미 개정된 학칙에 따라 올해 신입생을 모집해 이 학칙을 취소하면 학사운영에 큰 혼란이 생길 것 같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그대로 두도록 하는 '사정관결'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학칙 개정

당시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원고 교수들이 입는 불이익은 거의 없지만 학칙을 취소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대는 지난해 10월 본부 직할 생명과학기술부(생명과학·시스템생명공학·생물공학 전공) 입학정원을 없애고 3개 전공의 소속을 공과대, 자연과학대로 변경했다. 이에 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와 학생들은 총장실을 점거 농성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반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애완견 때린 노인 폭행해 사망

○자신의 애완견을 때린다며 이웃집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한 30대 여성이 경찰서행. ○7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정진필(32)씨가 지난 5일 오전 11시20분께 군산시 한 주택에서 집주인 최모(여·83)씨와 애완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최씨를 구타해 숨지게 했다는 것. ○경찰은 "사고 이후 전씨가 발자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진술을 반복하는 등 형사수술하는 상태"라며 난감함을 호소.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파워리버캡!

!그린알로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그린파워리버캡 출시!

그린파워리버캡은 100% 천연식품 밀크씨슬에서 추출한 실리마린 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간 건강지표를 나타내는 효소인 GOT, GPT 수치개선에 도움을 주며, 천연원료 비타민, 미네랄(11종)이 에너지 대사 활성을 도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헛개나무열매 추출물, 민들레 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 추출물, 운지버섯다실체 추출물, 울금 추출물, 효모추출물(글루타치온) 등 부원료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1%유지도 함유하지 않은 정제형 복합기능성 제품입니다.

섭취대상자

-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간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
- 잦은 회식과 야근에 늘 지쳐있으신 분!
- 업무량이 많아 피로하신 분!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그린알로에 제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상담실 080-234-6588